

서울상징 해치가 가지는 의미와 특성

Meanings & Characteristics of 'Haechi' as Symbol of Seoul

박영순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김은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박사과정

박재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석사과정

Park Young-soon

Yonsei university

Kim Eun-jeong

Yonsei university

Park Jane

Yonsei university

* 이 연구는 2009년도 서울시의 '서울디자인자산 100선 심화연구'에 의한 결과임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선행연구 고찰
- 1-3.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

2. 해치의 기원과 역사

- 2-1. 신수(神獸)의 상징적 의미
- 2-2. 해치의 기원과 의미
- 2-3. 시대적 변천에 따른 해치의 활용사례

3. 해치의 특성과 기능

- 3-1. 해치의 물리적 특성
- 3-2. 해치의 조형적 특성
- 3-3. 해치의 사회적 기능

4. 중국과 일본 신수(神獸)의 의미와 특성

- 4-1. 중국 신수(神獸)의 의미와 특성
- 4-2. 일본 신수(神獸)의 의미와 특성
- 4-3. 한중일 해치의 특성 비교

5. 결론 및 제언

- 5-1. 해치의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 5-2.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중국에서 유래된 해치는 한국과 일본에서 각기 다른 형태와 의미를 지닌 채로 발전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그 분포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조선시대 때 지어진 궁궐을 비롯하여 공공시설물, 주거시설, 상업시설, 경계지점 등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해치상은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구와 중구에 집중 분포해 있으며, 그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주로 앉아 있는 전신상과 포복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재료에는 화강석이 사용되었다. 조형적 특성은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목에 방울을 달고 있으며 몸에는 원형의 돌기, 날개장식, 소용돌이 문양 등이 장식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둥그렁고 부드러운 형태를 띤다. 사회적 의미로는 벽사, 수호신, 정의의 심판, 길상의 의미가 있다.

해치가 유래한 중국에서는 명·청대를 거치면서 민

간사회를 중심으로 사자상이 발달하여 현재에는 해치 대신 사자가 수호신과 벽사, 길상의 의미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개와 사자의 중간 형상을 가진 신수가 발달하여 신사 입구를 지키는 수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을 대표하는 해치는 다양한 의미와 특성을 지니는데, 중국과 일본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울 고유의 해치가 가지는 특성을 잘 살려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제어

해치, 신수(神獸), 서울상징

Abstract

Since its birth in China, the 'Haechi' has evolved through different form and meaning in Korea and Japan. In Korea, a high number of Haechi can be found around Seoul. They are spread out through Chosun palace, public areas, residential areas, commercial areas, and throughout the outskirts of Seoul.

The Haechi statues are concentrated around Chongro-gu and Chung-gu which is the center of Seoul. They are made of granite, greatly vary in sizes, and have two main postures of crouching and fully posed. Defining forms are slightly different with each type of Haechi, but there are several basic characteristics. They each possess horns, bells around the neck, and are embroidered with patterns such as circles, wings, and spirals. Overall, the Korean Haechi shows a smooth round form. Socially, the Haechi represents fire protector, guardian, justice, and good luck.

In China, Haechi has developed throughout the social class of Ming and Chung dynasty. Currently, the lion has taken place of the Haechi in representing as guardian, fire protector, and good fortune. In Japan, Haechi has evolved into a statue that looks halfway between a lion and dog is called 'Ko-ma-i-nu', and it's known as a guardian of a temple.

It is evident that each country's Haechi contain various meanings and attributes. Therefore, it is crucial that we actively develop and apply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Haechi of Seoul.

Keyword

Haechi, Imaginary animal, Symbol of Seoul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서울의 상징으로 선정된 해치(獬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해치는 중국에서 유래된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로 정의의 심판과 수호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치의 사회적 의미와 다양한 특성에 대한 자료는 중국과 한국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해치에 대한 연구들이 현재까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선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해치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과 역사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왔으며, 주로 문헌 고찰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져왔고 실제적인 해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생활문화 속에 밀착되어 사용되어 온 해치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해치를 중심으로 실측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해치는 궁궐을 제외하고서는 그 분포 위치와 설치배경, 형태적 특징 등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동물로서 해치가 가지는 다양한 물리적 특성, 심미적 특성, 사회적 의미 등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해치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그 의미와 특성들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발전해왔다. 한국의 해치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래가 동일한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함께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과 일본의 신수(神獸) 또는 해치에 관한 연구는 참고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치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사실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국내에 해치라고 알려져 있거나 해치로 사용되어 온 조각상들이 실제로는 중국의 사자가 잘못 알려진 점 등을 감안할 때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해치가 어떻게 변화와 발전을 하였는지 비교연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상징으로서 해치가 가지는 물리적 특성, 심미적 특성, 사회적 의미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해치의 기원국가인 중국과, 해치가 독특하게 변화되어 발전한 일본의 경우를 비교 연구하여 한국의 해치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고찰

동물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중국에서 유래되어 한국과 일본,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는 십이지 동물의 경우, 그 상징적 의미와 특성에 대한 국가간의 비교연구 또는 개별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십이지신에 관해서는 속담, 설화 등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사용특성과 상징적 의미를 파악한 연구들(고훈,2004; 경서근,2009; 김미애,2009; 김태영,2005; 송영숙,2008)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중국에서 유래된 십이지동물의 특성과 상징적 의미를 중국과 한국, 또는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파악하였거나, 중국, 한국, 일본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는 의미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고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 설화와 속담 등 문헌에 한정되어 일반적 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만 이루어져온 아쉬움이 있다.

한국의 동물 상징과 관련해서는, 전통 궁궐에 사용된 조각상의 의미와 일반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의 궁궐 지붕에 나타난 잡상을 사신, 십이지신, 십장생, 사군자, 식물문양 등으로 구분하고 그 형태적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거나(박정인, 2006), 경복궁에 사용된 석수조각의 의미와 배치를 살펴보고기도 하였다(배만근, 2006). 특히, 해치상에 관한 연구(이명선, 1999)도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 역시 전통 궁궐에 한정하여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적 연구에 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으로서의 동물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실재하는 동물과 상상의 동물로 분류(심지연, 2008)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용을 제외한 실제 존재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십이지신에 해당하는 용을 제외하고서는 해치와 같은 상상의 동물에 관해서는 비교적 깊이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동물의 상징 또는 상징동물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론적 고찰에 한정된 아쉬움이 있어 좀 더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으로 실재 존재하는 동물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해치와 같은 상상의 동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필요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범위가 전통 궁궐에 한정되어 상징동물의 현대적 사용 및 의미변화에 대한 연구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살펴 볼 때,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그 의미와 형태적 특성의 변화를 함께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3.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분포되어 있는 해치의 다양한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해치가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측 조사(2009년 3월 실시)하였다. 해치가 사용된 장소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장소유형을 7가지(궁궐, 거리 및 공원, 박물관, 공공기관, 호텔 및 주거공간, 상업시설, 서울경제지점)로 분류하고, 이들에 나타난 해치의 물리적 특성(분포, 크기, 배치방식), 심미적 특성, 사회적 의미 등을 파악하였다.

해치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나 집중적으로 그 분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의복의 문양, 그림, 조각상 등 다양하게 활용되어 온 해치의 사례 중, 조형물을 대상으로 원형 보존이 비교적 잘 되어 있고 실측이 가능한 조각상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의 해치와 비교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신수(神獸)로는 각각 중국의 해치와 사자, 일본의 고마이누를 선정하였다. 중국의 해치는 명·청대에 들어오면서 민간사회를 중심으로 사자가 강조되면서 그 의미와 상징적 역할이 해치에서 사자로 이동하게 되었고, 일본의 해치는 한국 고구려의 개 이미지와 합쳐지면서 개에 가까운 사자 형상을 가진 고마이누라 불리는 독특한 신수(神獸)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2. 해치의 기원과 역사

2.1. 신수(神獸)의 상징적 의미

시대를 불문하고 종교와 예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의 모티브에는 돌, 동물, 원이 있다¹⁾. 그 중에서도 특히 동물은 인간의 생활과 매우 가까이 밀착되어 등장하는 상징유형으로, 그 기원은 약 2만 년 전 크로마뇽인들이 그린 동굴벽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굴벽화에 그려진 동물은 인간이 현세에서 사나운 짐승을 지배하기 위한 의도로 그려진 것인데, 인간의 생존 및 다양한 주술적 의미들이 결합되어 토테미즘이라는 민간 신앙이 발생하였다.

동양 문화권에서 등장하는 상징 동물은 토테미즘이라는 민간신앙과 관련하여 발전되어 왔는데 자연물과 함께 사자, 호랑이, 사슴, 양 등 다양한 동물들이 주술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존재하는 짐승 외에 전설상으로 전해 내려오는 상상의 동물들도 등장하는데, 동양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상상의 동물로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봉황, 기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용은 중국을 대표하는 상상의 동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용을 비롯한 다양한 상상의 동물들은 동양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면서 서양 문화권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상상의 동물들 중에는 용을 비롯한 다른 동물들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져 있지만 신수(神獸)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삼국의 생활 문화에 밀착되어 오랜 기간 활용되어 온 해치(豸豸)가 있다. 동양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해치는 그 기원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나,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한중일 삼국이 각기 다른 의미와 형태로 발전시켰다.

2.2. 해치의 기원과 의미

해치(豸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전설상의 짐승으로, '신이경(神異經, 각종 신비로운 일을 기록한 소설류)'과 '이물지(異物志, 신비로운 상상의 동물 사전)'에 따르면 동북황(東北荒)에 살며 빨이 하나로, 성질이 충직하여 사람이 싸울 때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빨로 받고, 다투는 소리를 들으면 사론(邪論)을 펴는 사람을 문다고 기록되어 있다²⁾.

요임금시대³⁾에 세상에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해치는 해천, 신앙, 시고지, 해타 등으로도 불렸다. 해치는 대단히 영물스럽고, 시비곡직을 판단하는 신령스러운 재주가 있어 성군을 도와 현명한 일을 많이 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만일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 빨로 받아 넘긴다고 하여 '정의의 동물'로 알려져 왔다⁴⁾.

해치는 정의를 뜻하는 의미 외에 화마를 제압하는 의미로도 쓰였는데, 특히 조선시대에 궁궐을 중심으로 화재를 방지하고자 해치 조각상을 제작하였는데, 이는 관악산이 서울 내 궁궐에 화재를 자주 불러일으킨다는 풍수지리학적 주장과 관련이 있다. 그 당시 화기를 막기 위해 설치된 대표적인 해치상으로는 광화문 앞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한 쌍을 들 수 있다.

2.3. 시대적 변천에 따른 해치의 활용사례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해치상은 백제 무령왕릉(501~523)의 진묘수⁵⁾이다. 진묘수는 중국의 묘장 풍

1) 칼 G. 윌, 이윤기 역,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1996, pp. 232~239

2)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5, pp.734~737

3) BC 24C 경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제왕 (출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4) 허균, 서울의 고궁 산책, pp. 24~26

5) 무덤 속에 놓아두는 신상으로, 무덤을 수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짐승 모양을 하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죽은 이의 무덤을 지키고 악귀를 내쫓는다는 의미를 지닌 신수(神獸) 조각을 말한다. 이 해치상은 몽툰한 입과 코, 작은 귀, 통통한 몸통, 짧은 다리, 등에 둘러져 있는 갈기 장식, 다리 위 날개 장식 등을 가지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머리에 사슴뿔 모양을 띤 한 개의 쇠뿔이 달려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거의 지워지고 없지만, 입술을 비롯하여 온 몸에 붉은 색으로 채색도 되어 있다. 원래 묘장 풍습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무령왕릉의 진묘수는 중국에서 발생한 해치가 한국으로 전해지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이 당시에 한국에서 독자적인 해치상이 먼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⁶⁾.

해치가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로, 특히 궁궐 건축을 중심으로 그 활용도가 높았다. 조선시대의 해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정의로운 심판자라는 의미와 함께 벽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정의의 심판을 상징하기 위해 사헌부 관원 중 공정한 심판을 담당하던 대사헌(사헌부의 수장이 입는 관복 흉배) 및 모자에 해치를 사용하였다.

[표 1] 시대적 변천에 따른 해치의 활용사례

백제 무령왕릉 진묘수	해치 흉배	청화백자 해치모양연적	대한제국시대 국새
			
업경대 해치장식	해치 민화	목재해치받침 촛대	백자해치받침 촛대
			

해치는 관복과 함께 궁궐 입구 및 내부 곳곳에 석수(石獸)로 조각되어 재앙으로부터 궁궐을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의미로 활용되었다. 해치는 15세기 경 창덕궁 금천교와 경복궁 영제교에 설치되면서 궁궐에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17세기에 들어서 창경궁 옥천교와 명정전, 경희궁의 승정전에 해치상이 배치되었고, 19세기에 창덕궁 연경당에서도 해치상을 조각하여 배치한 것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EnCyber & EnCyber.com)

6) 이명선, 해치상에 관한 연구-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pp.10

7) 조선시대 왕·왕세자·문무백관이 관복의 가슴과 등에 장식한 표장

이처럼 다양한 해치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19세기 말(1894년, 고종 31년) 흥선대원군 시절에 경복궁 광화문 앞에 만들어진 조각상이다. 이 해치상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경복궁을 흥선대원군이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중건(1868년 완공)한 이후 이세욱이라는 석공에게 특별히 조각하게 한 것이다.

이 외에도 해치는 불교 사찰의 명부전⁸⁾ 탕화, 업경대(인간의 죄를 비추어 보는 거울), 영수회⁹⁾, 촛대와 연적, 대한제국시대의 국새 등에 활용되었다.

일제시대 및 6·25 격변기를 거치면서 한동안 그 사용과 의미가 잊혀진 해치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조각상으로 제작되어 분포하고 있다.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대검찰청의 청동 해치상을 비롯하여, 거리 및 공원, 호텔 및 주거시설, 공공기관, 박물관, 상업시설, 서울시 경계지점 등에서 다양한 해치상을 발견할 수 있다.

3. 해치의 특성과 기능

서울에 분포하고 있는 해치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치의 분포, 크기, 배치방식, 재료 등의 물리적 특성과 조형적 특성, 사회적 의미 등을 조사하였다. 해치상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해치의 분포 위치를 문헌과 각종 참고자료를 통해 파악한 후 직접 방문하여 사진촬영 및 실측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회적 의미는 필요한 경우 해치상이 설치된 기관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문헌과 각종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3-1. 해치의 물리적 특성

3-1-1. 해치의 분포

현재 한국에 분포해 있는 해치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진주 등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이는 서울이 한국의 수도 역할을 오랫동안 담당해 오면서 상징적 의미가 담긴 장식과 조각들이 많이 사용된 궁궐 건축이 현재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해치상 중에서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것으로 볼 때, 해치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대표하는 분포적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서울시에 위치한 해치의 분포 현황(그림 1)을 살펴

8) 죽은 이의 넋을 인도하여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기능을 하는 전각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2009.03)

9) 신령스러운 기운을 가진 상상의 동물을 그린 조선시대 민화

10) 서울시, 서울상징개발연구 보고서, 2008. 06, pp.160

보면, 서울경계지점을 제외하고서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구와 중구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때 궁궐이 광화문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과 연관이 있다. 이 외에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서초구 대검찰청, 성동구 어린이대공원, 서대문구 이화여대박물관 등에서도 해치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 서울의 해치 분포현황

장소 유형별로 해치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서울 외곽지역 가장자리를 따라서 서울경계지점마다 해치상이 분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계지점을 제외하고서 궁궐, 거리 및 공원, 박물관, 공공기관, 호텔 및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에서 발견되는 해치상은 조선시대 때 궁궐이 위치하였던 종로구와 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다.

궁궐의 해치상들은 모두 조선시대 때 제작된 것으로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에서 다양한 유형의 해치상을 발견할 수 있다. 경복궁의 경우, 해치의 대표상으로 알려진 광화문 앞 해치상을 포함하여 흥례문 입구, 영제교, 근정문, 근정전, 자경전, 집옥재 등 다양한 곳에 해치상이 계단 난간이나 건물 입구에 위치해 있다. 경희궁에는 승정전 월대 계단에 총 네 쌍의 해치상이 있고, 창덕궁에서는 연경당 앞 장락문 괴석 받침대에 부조로 조각된 해치를 포함하여 금천교 다리 난간에서 두 쌍의 해치가 발견된다. 창경궁에서는 옥천교 다리 난간과 명정전 월대 계단에 각각 해치상이 있고, 덕수궁에서는 대한문 입구와 중화전 상하 월대 계단에 네 쌍의 해치가 있다.

그 외에 대한제국시대비각, 환구단, 어린이대공원, 이화여대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국회의사당, 대검찰청, 국방부, 국립국악원, 조선호텔, 경희궁의 아침, 해태제과, 이열산 중국어학원, 서울경계지점에 해치상들이 각기 다른 형태와 크기로

위치해 있다¹¹⁾.

3-1-2. 해치의 크기 및 배치방식

서울에 위치한 해치상은 경복궁의 자경전, 창덕궁의 연경당 괴석 받침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2 내지 4, 또는 그 이상의 배수인 짝수로 배치되어 있다. 해치의 크기는 조각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그 규모는 가장 작은 것이 30cm × 30cm × 30cm (가로×세로×높이)에서부터 크게는 250cm × 130cm × 120cm에 이르기까지 해치상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표2 참고)¹²⁾.

해치상은 대부분 계단 난간에 입체 부조로 조각되거나, 환조로 조각되어 단상 위에 위치해 있다. 궁궐의 해치상들은 광화문과 자경전을 제외한 대부분이 계단 난간에 조각되어 있으며, 궁궐 외의 다른 곳에 위치한 해치상은 환조로 조각되어 문 입구에 한 쌍으로 배치되어 있다.

서울에 위치한 다양한 크기의 해치상들 중 경복궁 광화문에 있는 해치상이 330cm×220cm×200cm의 가장 큰 규모로 제작되었고, 그 다음으로 국회의사당의 해치상(250cm×130cm×120cm), 서울경계지점의 해치상(200cm×135cm×120cm), 어린이대공원의 해치상(180cm×140cm×60cm) 순으로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크기가 작은 것은 창경궁 옥천교에 있는 해치상으로 그 크기가 30cm×30cm×26cm이다.

배치수량과 배치방식을 살펴보면 경복궁의 자경전, 창덕궁의 연경당, 대검찰청에 위치한 해치상을 제외하고서 모두 조화와 길함을 상징하는 한 쌍 또는 2의 배수로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앉아 있는 전신상으로 조각되어 건물 입구 또는 건물 주변에 좌우로 나란히 배치되었고, 계단 난간에 조각되는 경우에는 포복형을 취하고 있다.

3-1-3. 해치의 재료

해치상 제작에 가장 많이 쓰인 재료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화강석이다. 화강석은 주로 서울 근교에서 채석하고 운반하여 사용하였는데, 재료의

11) 인사동의 골동품 상가에서도 해치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된 사자상으로 현재까지 일반인들에게 해치라고 잘못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인사동 거리에서 발견되는 사자상은 국내에서 제작된 한국 고유의 해치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12) 해치상의 치수 측정은 가로(정면에서 보았을 때의 가로 폭)×세로(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세로 폭)×높이(해치가 앉아 있는 좌대 바닥 윗면에서부터 조각상의 제일 높은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로 이루어졌다. 단, 층계 높이의 경우 바닥면에서 해치 얼굴 높이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특성상 단단하고 입자가 크기 때문에 정교하고 섬세한 조각을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표 2] 서울에 위치한 해치상의 물리적 특성

장소	위치	크기(cm)	자세	수(개)	
경복궁	광화문	330x220x200	앉아있는 전신상	2	
	홍례문	40x100x50	포복형	2	
	영제교	140x50x55	포복형	4	
	근정문	35x100x50	포복형	2	
	근정전	45x70x70	앉아있는 전신상	4	
	자경전	65x80x55	앉아있는 전신상	1	
	집옥재		50x210x65	포복형	6
			50x60x50	앉아있는 전신상	2
		40x65x50	포복형	2	
경희궁	승정전	160x120x30 120x50x30	포복형	8	
창경궁	옥천교	30x30x26	앉아있는 전신상	4	
	명정전	120x60x30	포복형	4	
창덕궁	장락문	60x29(부조)	앉아있는 전신상	1	
	금천교	33x30x26	앉아있는 전신상	4	
덕수궁	대한문	150x60x45	포복형	2	
	중화전		75x65x55	포복형	2
			160x60x35	포복형	2
			40x37x35	포복형	2
			140x50x33	포복형	2
거리 및 공원	대한제국시대 비각	55x30x40 155x30x35 140x85x35	앉아있는 전신상 포복형 포복형	2 2 2	
	한구단		38x34x30	앉아있는 전신상	28
				155x54x40	포복형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대공원	180x140x60	앉아있는 전신상	2
	박물관	이화여대 박물관	145x100x45	앉아있는 전신상	2
국립민속박물관		40 x 90 x 70	기어가는 전신상	2	
공공 기관	서울시소방재난본부	120x85x65	앉아있는 전신상	2	
	국회 의사당	250x130x120	서있는 전신상	2	
	대검찰청	51x15x50	서있는 전신상	1	
	국방부	140x110x60	앉아있는 전신상	2	
	국립국악원	55x30x20	앉아있는 전신상	2	
호텔 및 주거 시설	경희궁의 아침	60x45x30	앉아있는 전신상	2	
	조선호텔	50x100x80	앉아있는 전신상	2	
상업 시설	해태제과	70x115x110	앉아있는 전신상	2	
	중국어학원	30x53x95	앉아있는 전신상	2	
서울 경계 지점	관악구	200x135x120	앉아있는 전신상	2	
	금천구		앉아있는 전신상	2	
	강서구		앉아있는 전신상	2	
	송파구		앉아있는 전신상	2	
	강동구		앉아있는 전신상	2	
	은평구		앉아있는 전신상	2	
	금천구		앉아있는 전신상	2	
서초구	앉아있는 전신상	2			
계				140	

서울에 위치한 다양한 해치상들은 조선시대 때 제작된 궁궐의 해치상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러 제작된 해치상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화강석으로 제작되었는데, 재료의 특성상 조각이 섬세하고 정교하기 보다는 단순하고 부드러운 형태를 띤다.

석재 이외의 재료로 제작된 해치상에는 대검찰청 청사 입구에 위치한 해치상과 국립국악원에서 발견된 편종 받침대의 해치상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금속재(청동)와 목재(목재 위 채색)로 제작되었다.

조선시대 때 제작된 해치상은 그 재료를 서울 근교에서 조달하였는데, 당시 채석꾼들의 임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여 석재에 대한 수요에 비해 재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궁궐 건축 및 조각상 제작이 한창이던 이 시기에 석재는 대부분 궁궐에 한정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민가에서는 석재를 건축 및 조각 재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

3-2. 해치의 조형적 특성

해치의 외형적 특성과 관련된 중국 고문헌 기록을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해치를 소와 닮고 뿔이 한 개인 짐승이라고 설명하였고, ‘신이경(神異經)’에 의하면 ‘소를 닮고 뿔이 하나라는 점과 함께, 털이 청색이며 발은 4개이고 곶을 닮았다’라고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유씨의 ‘한서’ 주석에 따르면 해치는 사슴을 닮았고 뿔이 하나인 짐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 뿔이 하나 달리고 양의 모습을 닮은 ‘신양(神洋)’이라는 설도 있다¹³⁾.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해치의 조형적 특성은 머리에 뿔이 하나 달려 있고, 몸에는 비늘이 있으며, 눈과 코, 입이 큼직하게 생겼다. 큰 어금니 두 개를 입사이로 보이고 있으며, 목에는 방울을 달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서울에 분포해 있는 해치상은 장소와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다.

3-2-1. 궁궐에 위치한 해치의 조형적 특성

경복궁에 있는 해치상은 매우 다양한 조형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한국의 해치를 대표하는 원형으로 알려진 광화문의 해치상은 머리에는 뿔이 하나 누워 있는 형태로 달려있고, 눈과 코가 큼직하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서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을

13) 張競, 幻想動物の文化誌-天翔るシンボルたち, 農文協, 2002. 12. pp.54

준다. 입 사이로 크고 굵은 송곳니 두 개가 나와 있고, 목에는 큰 방울을 달고 있으며 발 형태는 사자가 가깝다. 몸통 전체에는 동그란 무늬의 비늘이 표현되어 있고, 어깨에는 날개처럼 보이는 장식¹⁴⁾이, 뒤쪽 몸통 부분에는 화염무늬 장식이, 앞다리와 꼬리 주변에는 갈기처럼 보이는 소용돌이 문양이 있다. 꼬리는 사자 꼬리처럼 길게 뻗어서 몸에 붙어 있다.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면에서도 용맹스러운 모습을 지녔다.

흥례문 계단 난간에 조각된 해치상은 광화문의 해치상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목에는 방울 대신 갈기 장식이 있고, 꼬리도 갈기로 덮여 있다. 몸통에는 비늘, 화염장식, 소용돌이 문양이 발견되었다. 영제교의 해치상은 헛바닥을 내밀고 있는 해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 위에 삼지창 모양의 뿔이 나 있고, 다리 난간에 매달려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몸에는 둥근 돌기 대신 생선 비늘 모양이 조각되었고, 날개, 화염, 갈기 장식 등이 있다.

[표 3] 경복궁의 해치상

광화문	흥례문	영제교
근정문	근정전 1	근정전 2
자경전	집옥재1	집옥재2

근정문의 해치상은 흥례문의 해치상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근정전의 가족 해치상은 광화문의 해치상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목에 방울이 달려 있지 않고 한 쌍이 짝을 이루는데, 도마뱀처럼 생긴 새끼가 몸통 부분에 매달린 것으로 조각되어 있다.

자경전의 해치상은 광화문 앞에 있는 해치보다 약간 얼굴이 길고, 크기도 작다. 꼬리가 양 옆으로 퍼져서 엉덩이를 감싸듯 조각되어 있고, 뒷다리의 발가락이 길고 발톱이 날카롭게 표현되었다. 집옥재 월대

계단 위에 조각된 해치상은 눈, 코, 입이 큼직하게 조각되어 있고, 송곳니가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고 있는 전신상은 이마와 눈이 튀어나와 있고, 얼굴이 굉장히 둥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몸통은 비늘로 덮여 있고, 눈썹이 꽃잎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다.

경희궁 승정전 월대 계단의 해치상은 몸에 돌기 또는 비늘이 세 개의 선과 문양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었다. 머리에는 뿔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고, 뽕족한 귀가 달려 있으며 송곳니가 드러나 있다. 창덕궁 연경당 장락문 괴석 받침에 조각된 해치는 양쪽 귀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 몸통에는 비늘이나 돌기가 없고, 꼬리와 귀에는 털의 결이 표현되어 있으며, 목에는 커다란 방울을 달고 있다. 금천교의 해치상 역시 귀가 덮여 있는데, 과장된 손과 발의 조각으로 인해 옆에서 보면 개구리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고, 5개의 발가락이 도톰하게 조각되어 있다.

[표 4]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의 해치상

경희궁 승정전	창덕궁 연경당	창덕궁 금천교
창경궁 옥천교	창경궁 명정전	덕수궁 대한문
덕수궁 중화전		

창경궁 옥천교의 해치상은 둥그스름하고 친근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입술이 도톰하고 코가 크게 표현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각상의 마모도가 심해 세부적인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명정전의 해치상은 월대 계단 위에 얼굴만 조각되어 있는데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썹이 바람에 휘날리듯 길게 머리 위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몸에는 비늘 대신 두 줄의 선이 표현되었다.

덕수궁 대한문 입구의 해치상은 머리만 조각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둥글게 조각된 부리부리한 눈, 큼직한 코, 송곳니 없이 가지런한 이빨, 세 갈래의 뿔 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중화전의 해치상은 머리에 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동시에 발견되며, 몸통에 비늘이 표현된 것과 단순하게 두 줄의 선으로 표현된





14) 어깨의 날개 장식이 과거 왕족들이 착용하는 옷의 어깨와 등 장식으로 붙이던 흉배 장식인 보(補)에서 기원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것이 있다. 목 부분에는 방울처럼 보이는 소용돌이 모양의 장식이 조각되어 있다.

3-2-2. 거리 및 공원에 위치한 해치상

광화문 사거리에 위치한 대한제국시대 비각의 해치상은 4개의 송곳니를 가지고 있고, 목에 방울이 달려 있으며 광화문의 해치와 같이 몸에 동그란 무늬의 돌기와 화염무늬, 소용돌이, 날개장식이 있다.

[표 5] 거리 및 공원·박물관에 위치한 해치상

거리 및 공원		
대한제국시대 비각	환구단 1	환구단 2
		
거리 및 공원	박물관	
어린이대공원	이화여대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환구단 팔각 난간 위의 해치상은 경복궁 집옥재의 해치상과 비슷하다. 얼굴은 해학적이고 친근한 모습으로 몸에는 전체적으로 동그란 돌기가 있으며, 꼬리는 등 위를 덮을 만큼 넓게 퍼져 있다. 작고 아담한 크기에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출입문 입구 계단의 해치는 입과 코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머리 위에 뿔과 함께 귀가 조각되어 있다. 몸에는 비늘과 날개처럼 보이는 화염장식이 새겨져 있다.

어린이대공원 팔각정 입구에 위치한 해치상은 코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광화문의 해치상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엉덩이 부분에 길고 굽은 꼬리가 조각되어 있고 몸통에는 동그란 돌기, 화염장식, 날개처럼 보이는 소용돌이 무늬가 있다.

3-2-3. 박물관에 위치한 해치의 조형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입구의 해치상은 몸에 돌기가 없이 매끈하게 조각되어 있고 꼬리가 없다.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는 듯한 입에는 송곳니가 튀어나오지 않고 이빨이 고르게 표현되었다. 일반적인 해치상과 매우 다른 조형 특성을 보이는데, 커다란 눈, 코, 입을 제외하고서는 아주 단순하게 조각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 입구의 해치상은 기어가는 듯한 형상으로 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가 있고, 귀가 길게 아래로 덮여 있다. 몸에는 동그란 돌기와 소용돌이

무늬가 있다.

3-2-4. 공공기관에 위치한 해치상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정문 입구에 있는 전신상의 해치는 광화문의 해치상과 유사한데, 4개의 송곳니 중 특히 2개의 송곳니가 길게 뻗어 있다. 국회의사당의 해치상은 유난히 긴 목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 조각은 모 제과업체에서 제작 의뢰하여 국회의사당에 기증한 것으로 광화문의 해치상과 차별화를 두고자 삼수 한 쌍으로 제작하였고, 형태와 자세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였다.

[표 6] 공공기관의 해치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국회의사당	대검찰청
		
국방부	국립국악원	
		

대검찰청의 외부 쉼터에 위치한 해치상은 가장 크기가 작으며, 서양의 유니콘을 연상시키는 긴 뿔이 하나 달려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염소와 비슷한 모습인데, 여느 다른 해치처럼 몸의 돌기나 강조된 코와 눈, 날개장식, 화염 및 소용돌이 무늬 등은 전혀 없으며 전체적으로 털이 묘사되어 있고 짧은 꼬리가 종긋하게 서있다. 누군가를 향해 돌진하는 자세로 한쪽 다리를 들고 있다.





국방부 입구에 위치한 해치상은 송곳니 4개를 드러내고 있고, 긴 꼬리는 등 위로 감겨 올라가 있다. 몸 전체에 큼직한 비늘이 조각되어 있고, 앞다리에 소용돌이 무늬가 있다. 국립국악원의 편종 받침대에 조각된 해치상은 유일하게 목재로 조각된 후 채색이 되어 있다. 창덕궁의 해치상과 같이 귀가 덮여 있고 송곳니는 없으며, 코가 작게 표현되어 있다. 몸에는 5개로 구성된 점 패턴이 돌기를 상징하듯이 그려져 있고, 붉은 색의 화염무늬가 그려져 있다.

3-2-5. 호텔 및 주거시설에 위치한 해치상

‘경희궁의 아침’ 아파트 단지 입구의 해치상은 그 형태가 광화문의 해치와 유사하다. 송곳니 4개가 드

리나 있고 몸에는 동그란 무늬의 돌기와 화염, 날개 장식이 있다. 소공동 조선히텔 후문 입구의 해치상은 중국의 사자상에 가깝다. 인사동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의 석사자상과 같이 한 마리는 수구를, 다른 한 마리는 새끼를 밟고 있으며 몸 전체의 근육과 꼬리, 머리의 갈기 표현 등이 사자에 가깝다. 대부분의 해치상에서 나타나는 비늘 또는 돌기 장식이 없이 몸 전체가 매끈하게 표현되었다.

[표 7] 호텔 및 주거시설·상업시설의 해치상

호텔 및 주거시설	
조선호텔 	경희궁의 아침 
상업시설	
해태제과 	중국어학원 

3-2-6. 상업시설에 위치한 해치상

용산구에 위치한 해태제과 본사 입구의 해치상은 머리, 몸의 돌기, 털의 묘사 등이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꼬리가 등에 완전히 붙어있지 않고 끝 부분이 살짝 떨어져 곧게 서있다. 송곳니는 두 개를 드러내고 있고, 목에 방울은 달려있지 않다. 중구에 위치한 중국어학원 정문 입구의 해치상은 북처럼 생긴 원통 위에 앉아 있는데, 송곳니가 없는 입을 벌리고 있으며 가지런한 이빨을 보이고 있다. 몸에는 돌기가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조선히텔의 해치처럼 사자 갈기가 있다.

3-2-7. 서울경계지점에 위치한 해치상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시·도 경계지점에는 제과업체에서 제작하여 서울시에 기증한 해치상들이 분포해 있다. 이들은 광화문의 해치상과 그 자세 및 모습이 유사한데, 몸에는 동그란 돌기, 화염장식, 날개장식 등이 새겨져 있고, 목에는 수염같이 생긴 갈기 아래로 방울을 달고 있다. 경계지점에 분포되어 있는 해치상들은 제과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모델을 생산하여 기증한 것으로, 모두 똑같은 크기와 조형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8] 서울경계지점의 대표적인 해치상



이상에서 살펴 본 해치상의 조형특성으로 볼 때 서울 곳곳에 분포해 있는 해치상은 분포 장소와 제작 시기, 조각가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일곱 가지의 특정한 장소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각각의 장소별로 차별화된 형태적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동일한 장소 내에서도 각각 그 표현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제작연도가 각기 다른 점을 미루어 볼 때 조각가의 의도적 표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각각의 해치상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형특성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형 특성을 머리, 몸통, 다리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치상의 얼굴은 대부분 눈과 코, 입이 크게 강조되어 있고, 머리 위에는 뿔이 하나 또는 두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위로 솟은 형태가 아니라 머리에 누여서 부조로 조각되어 있다. 입에는 송곳니 4개가 표현되는데, 가운데 2개의 송곳니보다 양쪽 끝의 송곳니가 더 길게 강조되어 있다. 눈썹은 바람에 날리듯이 위로 향해 있으며 조각상이 전신상일 경우에 목에는 방울을 달고 있고, 포복 자세로 표현된 해치상은 목에 방울이 생략되거나 방울 장식이 있다.

대부분의 해치상의 몸통에서는 여러 가지의 장식 문양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사실적으로 표현된 비늘 또는 원형 패턴의 돌기 형상을 몸 전체에 걸쳐서 볼 수 있고, 겨드랑이 부분에는 끝부분이 동그랗게 말린 날개가 달려 있으며, 꼬리는 길게 뻗어 있거나 몸통을 덮을 정도로 털이 수북하게 표현된다. 앞다리와 꼬리 주변에는 갈기처럼 보이는 소용돌이 문양 또는 자연스러운 갈기 조각이 새겨져 있다.

해치상의 다리에도 역시 몸통처럼 동그란 패턴의 돌기 또는 비늘이 보이며, 구름처럼 날리는 모습의 갈기 털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다. 대부분의 해치상은 전체적인 외형을 따라서 동그스름하고 몽툰하게 생긴 발과 발톱을 가지고 있는데, 영제교의 해치상과 같이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표 9] 서울시 해치상이 가지는 공통적인 조형특성

구분	조형 특성
얼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 코 입이 큼직하게 강조됨 - 입 사이로 송곳니가 길게 드러남 - 머리 위에는 하나 또는 두세 갈래의 뿔이 뉘어져 있음 - 눈썹은 바람에 날리듯이 위로 향함 - 귀는 대개 강조되지 않음 - 목에는 큼직한 방울이 달려 있거나, 소용돌이 문양 장식이 있음
몸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전체에 사실적인 비늘 또는 원형의 돌기가 있음 - 겨드랑이에 끝부분이 동그랗게 말린 날개 장식이 있음 - 꼬리 주변으로 갈기처럼 보이는 소용돌이 문양이 있음 - 꼬리는 일자로 길게 뻗어서 몸통에 붙어 있거나, 털이 수북하게 달린 것으로 표현됨 - 몸통에 비늘과 원형의 돌기를 생략할 경우 등을 따라서 긴 두세 개의 줄로 표현함
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리 전체에 몸통과 같이 동그란 패턴의 돌기 또는 비늘이 덮여 있음 - 갈기 털이 앞다리 부분에 소용돌이 모양으로 표현됨 - 동그스름하고 뭉툭하게 생긴 발과 발톱을 가지고 있음

3-3. 해치의 사회적 의미

해치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삶과 밀착되어 다양한 의미를 지니면서 활용되어왔다. 해치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분벽화의 그림으로, 동물이 아니라 해치를 상징하는 남두육성이라는 별자리를 통해 수호신으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였다. 환인 신화에서는 송사를 맡은 관리가 정확히 판결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하면, 하늘에서 해치를 보내 범죄자와 시비선악을 구별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사찰의 명부전 탕화에서는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법관으로 해치가 등장하여 정의의 심판자로 그 의미가 소개되고 있다.

해치의 '치'는 벼슬아치를 뜻하는 말로 이치한(왕의 업무를 담당하는 승정관)과 밭치한(농사를 관장하는 사농경) 등 정의롭고 현명한 신라 관직을 뜻하기도 하였다. 국보 제91호인 '도제 기마 인물상'이나 가야 시대의 '기마 인물상' 등에서는 정의를 상징하는 법관으로서 해치가 가지는 머리 위의 뿔을 말에 접목시켜 수호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 외에 조선시대 사헌부의 관복과 모자에 해치 흉배를 그림으로써 해치관 및 관복을 통해 정의를 심판하는 법관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풍습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해치는 백제 무령왕릉에서 최초로 만든 뿔이 달린 진묘수를 통해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이것의 의미는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무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벽사를 뜻한다. 또한, 능묘 앞에 세워진 망주석에서는 천화화평 및 자손 창성 등 길상적 의미로 해치를 조각하였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삶과 밀착되어 사용되어 온 해치는 그 사회적 의미를 살펴볼 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법관, 나라 및 개인을 지키는 수호신, 화재를 비롯한 재앙을 물리치는 벽사, 운수가 좋기를 바라는 길상의 의미 등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치의 이러한 사회적 의미는 분포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궁궐(경복궁, 경희궁)의 해치는 잦은 화재로 인하여 대원군이 궁궐을 중건하면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알려져 있다.

거리 및 공원 중 대한제국시대 비각과 환구단에 위치한 해치상 역시 수호신을 의미한다. 환구단은 하늘에 제를 지내기 위해 설치된 제단으로 범죄자를 처벌하고 시비선악을 구별하는 사신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해치상을 배치시켰다. 어린이대공원의 해치상은 재앙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수호신과 벽사의 의미를 가진다.

공공기관에서는 해치상이 수호신, 벽사, 정의의 심판 등의 의미를 가진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서는 화재를 진압하고 개인 또는 국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치가 사용되었고¹⁵⁾, 국회의사당의 해치상 역시 국회의사당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벽사의 의미에서 설치되었다¹⁶⁾.

대검찰청의 해치상은 법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별하고 죄를 심판하는 정의를 의미한다. 국방부의 해치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현명한 판단과 정의로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와 함께 화재로부터 신청사 건물을 보호하자는 정의 및 벽사, 수호신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¹⁷⁾.

아파트 단지입구 및 호텔 입구의 해치상은 정확한 의미가 전해지지 않지만, 해치가 가지고 있는 수호와 벽사라는 전통적 의미를 통해 입주민 또는 여행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상업시설의 해치상은 재앙을 막기 위한 벽사의 의미와 함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길상의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서울경계지점의 해치상은 외부에서 서울로 사악한 기운 또는 재앙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벽사와 수호신의 기능을 담당한다.

15) <http://blog.paran.com/hiseoul119/14583729> (2009. 03기준)

16) 1975년 의사당 건물이 태평로에서 여의도로 이전할 당시에 소설가 박종화 선생이 '경복궁이 화재로 전소된 뒤 복원공사 때 해치상을 세워 화재를 예방하였으니 의사당 역시 해치상을 세우자'라고 건의하여 해치상이 제작되었다.

<http://news.chosun.com> (2008년 5월 20일자 기사)

17) <http://news.chosun.com> (2005년 5월 19일자 기사)

[표 10] 해치상의 제작년도 및 사회적 기능

분류	장소	세부장소	제작연도	사회적 의미
공궐	경복궁	광화문	1894년	수호신, 벽사
		홍례문	2001년	
		영제교	1426년	
		근정문	1894년	
		근정전	1894년	
		자경전	1894년	
		집옥재	1881년	
	경희궁	승정전	1620년	수호신
	창경궁	옥천교, 명정전	1616년	수호신
	창덕궁	연경당	1828년	수호신
금천교		1405년	수호신	
덕수궁	대한문	1906년	수호신	
	중화전	조선 말기	수호신	
거리 및 공원	대한제국 시대비각	비각 남쪽	1902년	수호신
	한구단	팔각 난간 및 문 입구	1897년	수호신, 천제의 사신
	어린이 대공원	팔각정 입구	1973년	수호신, 벽사
박물관	이화여대 박물관	정문 입구	1989년	수호신
	국립민속 박물관	정문 입구	1930년대 추정	알 수 없음
공공 기관	서울시 소방 재난본부	정문 입구	2007년	수호신, 벽사
	국회 의사당	정문 입구	1975년	벽사
	대검찰청	내부 잔디밭	1999년	정의의 심판
	국방부	정문 입구	2003년	정의, 수호신, 벽사
	국립 국악원	편종 받침	조선 후기	수호신
호텔 및 주거 시설	경희궁의 아침	단지 입구	2004년	알 수 없음
	조선 호텔	후문 입구	2001년	알 수 없음
상업 시설	해태제과 본사	정문 입구	2006년	벽사, 길상
	이얼싼 중국어학원	정문 입구	2002년	길상
서울 경계 지점 ¹⁸⁾	서울-과천	경계입구	1996년 이후 추정	수호신, 벽사
	서울-고양		1975년경 추정	
	서울-성남		1996년 이후 추정	
	서울-안양			
	서울-하남			

18) 현재 서울경제지점에 위치해 있는 해치상의 정확한 제작연도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치상 아래에 새겨져 있는 서울시의 휘장 사용시기(2차 및 3차 개정)와 제과업체에서 국회의사당에 해치상을 기증하였던 시기(1975년)를 중심으로 대략 연도를 추정하여 기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에 분포한 해치상은 크게 수호신, 벽사, 정의의 심판, 길상이라는 네 가지의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시대 때에 제작된 해치상은 개인보다는 국가를 보호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호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잦은 화재를 겪었던 경복궁을 비롯하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국회의사당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 호텔 및 주거시설, 서울경제지점 등에서는 수호신의 의미와 함께 재앙(화재)으로부터 개인 또는 시민을 보호하는 벽사의 의미로 해치상이 사용되었다. 대검찰청은 정의로운 심판을 상징하기 위해 해치상을 제작하였고, 상업시설은 사업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길상적 의미를 해치에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해치는 원래 정의의 심판자이자 공명정대한 법관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벽사와 길상이라는 민간신앙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궁궐과 건축물에서 수호와 벽사의 의미로 해치상을 사용하였다면, 현재에 이르러서는 공공기관, 상업시설에서 길상적 의미가 더해져 해치상이 사용되고 있다.

조형적 특성에 따른 해치의 사회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광화문의 해치 및 이를 원형으로 삼아 제작한 해치상은 근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는데, 주로 수호신과 벽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머리의 뿔이 강조되고 염소에 가까운 대검찰청의 해치는 수호나 벽사의 의미 없이 정의의 심판이라는 단일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업시설 또는 주거시설에서 발견되는 친근한 이미지의 해치상 또는 형태적으로 매우 단순하게 표현되었거나, 사자에 가까운 모습을 지닌 해치상은 길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중국과 일본 신수(神獸)의 의미와 특성

해치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상상의 동물로, 한국과 일본에 전해지면서 나라별로 각기 다른 의미와 형태로 발전하였다.

해치가 유래된 중국에서는 명·청대에 이르러 용맹스러운 사자의 이미지를 서양에서 받아들여 해치가 석사자상으로 변화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쌍의 석사자상이 건물 입구 좌우에 배치되는데, 수구를 밟고 있는 숫사자는 천하를 지배함을 의미하고, 새끼 사자를 밟고 있는 암사자는 다산을 상징한다.

중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고마이누라고 하여 개의 형상에 가까운 형태로 사자상이 발달하여 신사 입구 또는 배전 앞 등에 분포하게 되었다. 이름이 고마이

누라고 전해지는 것은 일본 개와는 다른 형태를 지닌 동물의 모습이 고구려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여 붙여진 것인데, 신사 수호 및 재앙을 물리치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고마이누 역시 한 쌍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형태는 개의 모습에 가깝다.

4.1. 중국 신수(神獸)의 의미와 특성

해치가 유래된 중국에서는 해치와 생김새가 비슷하면서 그 상징적 의미가 조금씩 다른 상상의 동물들이 많이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뿔이 하나 달린 짐승이라고 하여 일각수(一角獸)라고 부르는데, 그 종류에는 대표적인 일각수로 알려진 해치와 기린 이외에 푸른 들소, 정, 얼룩말, 간소, 하츠바, 토우토우 등이 있다.

중국에 이처럼 다양한 일각수가 등장하는 것은 그 상징적 의미 때문인데, <송서 권 29, 지제 18>에 의하면 천하가 하나로 통일되고 평화가 찾아오면 일각수가 등장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⁹⁾. 이것은 일각수가 상상의 동물로써 경사스럽고 상서로운 의미를 내포하면서 숭배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표 11] 중국의 다양한 일각수(一角獸)

종류	해치	기린	천록
이미지			
의미	정의 심판	수호신	수호신
종류	각단	벽사	푸른 들소
이미지			
의미	수호신	사악을 물리침	초능력의 동물
종류	하츠바	토우토우	정
이미지			
의미	의미 없음	의미 없음	의미 없음
종류	추우	박(박수)	관소
이미지			
의미	군주 칭송	병사 물리침	화재 예방

19) 張競, 幻想動物の文化誌-天翔るシンボルたち, 農文協, 2002. 12. pp.57



일각수 중 해치는 특히 중요한 존재였는데, 진나라 이후 처음 등장한 해치는 선악을 구분하는 정의심이 강한 동물로,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뿔로 찌르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해치 이외에 기린, 천록, 각단은 상서로운 수호신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로 그 형태가 제각기 다르다. 수호신으로서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동물도 있었는데,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것으로 알려진 벽사, 병사를 물리치는 박(박수), 화재를 예방하는 관소가 있었다. 푸른 들소는 초능력을 가진 흉폭한 맹수로 묘사되었고,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긴 했으나 인덕이 있는 군주를 칭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우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 뿔이 하나 달린 상상의 동물로 하츠바, 토우토우, 정이 있는데 이들의 상징적 의미는 특별히 알려지지 않았다²⁰⁾.

해치는 시대에 따라 왕조가 바뀌면서 그 형태도 조금씩 변하였는데, 원래 날카롭게 돌출되어 있던 뿔은 뒤로 쏠리게 되고 부드러운 형상을 띠게 되었다. 해치의 조각상은 중국 왕조의 능묘건축에서 많이 발견된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능묘는 300~400여개로, 이들은 중국의 10개 성과 자치구 등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능묘는 명·청 시대의 황실 능묘건축으로, 특히 남경의 '명 효릉'과 '명 13릉'의 해치상이 유명하다.

명 효릉은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과 마황후가 합장되어 있는 능으로, 능묘 안쪽 신도(神道)에 해치상이 사자, 낙타, 코끼리, 기린, 말 등 다른 석상과 함께 쌍으로 배치되어 있다. 해치를 포함한 이 석상들은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표 12] 명대의 해치상

이름	명효릉 해치상	명13릉 해치상
이미지		

중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능묘건축으로 알려진 명 13릉의 신도(神道) 입구 양편에도 사자, 코끼리, 기린, 말, 낙타 등을 포함하여 해치 석상이 앉거나 서 있는 자세의 한 쌍으로 배치되어 있다. 해치상은 다른 석상들과 함께 황제들의 영혼을 지키는 수호신의

20) 張競, 幻想動物の文化誌-天翔るシンボルたち, 農文協, 2002.

역할을 하였다.

해치는 명·청대에 들어서면서 용맹스러움이 강조된 사자와 병용되기 시작하였다. 사자상은 자금성 천안문 금수교 좌우의 석사자상을 비롯하여 황궁건축, 왕족 또는 대부호의 저택 대문 입구, 지방 마을의 사찰, 관공서 등지에서 발견된다.

중국에 사자가 처음 소개된 것은 동한시대(기원 후 25~220년)에 이란(당시 명칭은 안식국)의 왕이 한나라 황제에게 선물로 증정하면서이다. 사자는 기이하게 생긴 사나운 맹수로 알려져 초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점차 그 의미가 신격화되었고, 그 후 예술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통하게 되었다.

사자는 능묘 입구, 중요한 기능을 가진 건축물 대문 등에서 석상으로 조각되어 대문을 지키고 주인의 위세를 나타내는 수호자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보통 석사자상은 한 쌍으로 조각되어 배치되는데, 일반적으로 문 왼편에 수구를 밟고 있는 숫사자를 배치하고, 오른편에 어린 사자를 밟고 있는 암사자를 배치하였다. 사자는 대문과 능묘 입구뿐만 아니라 돌난간, 주춧돌, 석기둥 위, 처마 밑기둥, 대접받침 등 다양한 곳에서 수호자의 의미로 활용되었다.

명·청대에 들어서면서 사자는 고궁, 조정, 사찰, 왕족 저택 등에서 다양한 크기와 재료, 형태를 가진 조각상으로 제작되어 적극 사용되었다. 크기와 중요성으로 볼 때에 황궁 입구에 있는 사자상이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데, 자금성 건화문, 영수문, 건청문 등에서 발견되는 사자상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사자의 사지는 근육질로 표현되어 있고, 구부러진 사자갈기와 함께 목에는 방울을 달고 있는 등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조각되었다.

시대별로 변화해 온 사자상을 살펴보면, 초기의 사자상은 조형이 비교적 간결하고 세련되었으며, 약간 과장된 표현기법과 힘 있고 중후한 선적 표현법을 통해 위엄 있고 위풍당당한 이미지를 가진다. 후기로 갈수록 사자상은 전체 및 세부적 표현이 모두 실제 사자에 가깝도록 사실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되면서 용맹하고 위엄 있는 표현이 약화되었다.

황궁을 지키는 수호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중국의 사자상은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서민들과 친근한 이미지로 변하였고, 현재에는 길한 일이 생기고 집안이 평안하며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황궁이나 왕족의 저택이 아닌 일반 민가, 상점, 상업시설 등에서 흔히 사자상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조형적 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사실적이고 친근하게 묘사되고 있다.

[표 13] 자금성 태화전 입구의 암·수 사자상

이름	숫사자상	암사자상
이미지		



이와 같이 벽사 및 수호신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자는 명·청 시대 때까지 정의의 심판관을 뜻하는 해치와 함께 중국 사회에서 병행되어 사용되었다. 이 후 서민 계층을 중심으로 해치 대신 사자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왕족을 중심으로 사용되어 온 해치는 현재에는 그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4.2. 일본 신수(神獸)의 의미와 특성

일본에서는 해치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지만, 해치와 비슷한 생김새와 의미를 지닌 ‘고마이누’라고 불리는 신수(神獸) 조각상이 있다. 고마이누는 신사를 수호하고 사악한 기운을 쫓는다는 의미를 지닌 개 또는 사자의 모습을 띤 상상의 동물로, 주로 신사 입구 또는 불교사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마이누는 한자로 고려견(高麗犬)²¹⁾ 또는 박견(狛犬)이라고 표기하는데, 일본어로 ‘고마’는 고구려를 뜻하고, ‘이누’는 개를 지칭하는 단어로, 두 단어를 합치면 ‘고구려 개’라는 의미를 지닌다. 고마이누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것인데, 당시 일본인들은 이 상상의 동물을 매우 낯설게 여겼고, 그 유래를 알지 못하던 이들이 가까운 한국의 고구려에서 건너 온 짐승이라고 추측하여 고마이누라고 이름을 붙였다.

[표 14] 일본의 고마이누

장소	아사쿠사 신사	이츠키 신사
이미지		

고마이누는 헤이안 시대 말 무렵부터 신사 입구를

21) 8세기 일본서기 문헌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삼국 중 고구려를 고려로 표기하였다고 전해진다.(출처: 아베마 사미치, 배정웅 역, 신사문화를 모르고 일본문화를 말할 수 있는가?, 도서출판 계명, 2000.12. pp.69~70)

지키게 되었는데, 이 형상은 시대별로 귀를 숙인 것과 세운 것, 뿔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다물고 있는 것 등이 한 쌍을 이룬다.

고마이누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해치와 비슷한 형상을 띠고 있는데, 헤이안 시대의 문학작품에서는 귀를 세우고 머리에 외뿔이 달려 있는 것이 고마이누에 해당하고, 귀를 숙이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사자라고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토끼, 늑대, 여우 등 다양한 짐승의 형태를 닮은 고마이누상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석재를 비롯하여 목재, 청동재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4.3. 한중일 해치의 특성 비교

중국과 일본의 신수(神獸)에 대해 살펴 본 결과, 해치가 처음 유래된 중국에서는 해치를 포함하여 천록, 기린, 각단 등 다양한 일각수 동물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 해치가 한국과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한국에서는 뿔이 달리고 정의의 심판 및 수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한국적인 해치상을 발전시켰고, 일본에서는 해치라는 이름 대신 고마이누라는 개에 가까운 사자 형상으로 발전시켜왔다.

한편 해치가 유래된 중국에서는 웅맹스러운 사자의 이미지가 민간 신앙과 결합하면서 해치를 대신하여 길상과 수호신, 벽사 등의 의미를 지니고 현재까지 서민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해치는 한중일 삼국에서 신수(神獸)라는 독특한 상상의 동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면서도, 국가와 시대별로 조금씩 다른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발전하였다. 중국에서는 정의의 심판과 수호를 상징하는 해치를 대신하여 길상적 의미를 지닌 사자를 선호하면서 사납고 무서운 형태에서 벗어나 친근하고 장식적이면서 풍자스러운 조형성을 지니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해치가 개에 가까운 사자 형상을 띠는 등 중국과 일본에서는 상상의 동물이 지니는 해치 고유의 조형성에서 벗어나 실제 존재하는 동물의 형상으로 점차 발전하게 되었다. 반면, 한국의 해치는 근엄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니면서 상상의 동물로서의 다양한 조형적 특성을 그대로 살린 채 사용되어 왔다.

5. 결론 및 제언

5.1. 해치의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한중일 삼국이 각기 다른 형태와 의미로 발전시켜 온 해치를 서울상징으로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향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치가 가지는 조형적 특성과 사회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크게 세 가지의 활용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해치가 가지는 정의와 수호적 의미를 부각시켜 서울시와 시민의 안전을 강조하고 정의로움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치의 사회적 의미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어야 하는데, 서울의 안전과 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선 시민에게 해치상을 수여하거나 시민을 대상으로 정의와 믿음, 안전 등의 캠페인을 벌이는데 해치를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치의 사회적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다. 또한, 서울 도심 대중교통수단 중 모범운전수가 운행하는 차량에 해치 이미지를 적용하여 안전과 수호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데, 이미 서울시는 해치 이미지를 적용한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다.

둘째, 현대에 이르러 길상적 의미가 강조되고, 풍부한 표정과 자세를 지니는 등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해치의 문화적 콘텐츠를 다각도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해치가 지닌 다양한 의미와 조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의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서울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해치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의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하여 퍼레이드, 사진전, 페이스 페인팅, 그림대회, 작가전 등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에 해치 캐릭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도록 한다. 해치의 형태적 특성 외에 상상의 동물이라는 특이한 점을 살려 창작동화 또는 실화 등 다양한 스토리를 개발하여 내외국인들에게 서울상징으로서의 해치가 가지는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의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각적 요소로 해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전통 궁궐, 공공기관, 상업지역, 주거지역, 경계지점 등에 해치상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관리와 체계적인 배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적인 해치의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공원, 관광명소 등을 중심으로 해치상의 설치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밖에, 서울시 지정 숙박업소, 공공시설의 등급을 표시하는 마크 또는 로고에 해치를 통일성 있게 적용하여 서울시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한다.

5.2.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해치는 전국에서 90% 이상의 조각상이 서울에 분포되어 있어 해치가 서울

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해치는 과거 수도의 중심부 역할을 했던 강북의 종로와 중구를 중심으로 궁궐, 공공·주거·상업시설, 경계지점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었다.

중국, 일본과 달리 상상의 동물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머리의 뿔, 목의 방울, 몸의 비늘, 날개 및 화염 장식 등 다양한 조형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조각상에 따라서 풍부한 표정과 자세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 콘텐츠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해치는 정의를 심판한다는 중국의 원형적 의미를 비롯하여 벽사, 수호신, 길상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현대에 이르러 보다 친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양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해치는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그 의미와 형태가 각기 다르게 발전되었다. 중국에서는 수호신과 정의를 상징하는 동물로 해치 대신에 사자상이 발달하였다. 일본의 해치는 개의 형상에 가까운 사자의 이미지로 발전하여 신사 입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사용되는 등 중국과 함께 실재 존재하는 동물의 형상으로 그 조형적 특성이 변화되었다. 반면, 한국의 해치는 선악을 판단하는 정의의 심판과 재앙을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과 달리 전통적인 상상의 동물로서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어왔다.

이처럼 긍정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지닌 동시에, 상상의 동물로서 풍부한 콘텐츠를 내포하고 있는 한국의 해치는 디자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해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리적 특성, 조형적 특성, 사회적 의미 등을 이해하고, 중국·일본의 해치와의 관계 및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서울 고유의 해치가 가지는 특성을 살려 세계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해치가 가지는 풍부한 조형적 특성과 의미를 살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각요소로 통일성 있게 잘 활용하면 서울의 상징적 이미지를 보다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을 발전시키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고유한 디자인 자산으로 해치를 잘 활용한다면, 서울을 대표하는 해치는 베를린의 버디베어, 싱가포르의 머라이언과 같이 도시를 상징하고 홍보하는 효과적인 문화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선 외 4인.(2005). '이야기가 있는 경복궁 나들이', 서울:역사넷.
- 김순일, 김종섭.(1991). '덕수궁(경운궁)', 서울:대원사.
- 데이비드 폰테너 지음, 최승자 역.(1998). '상징의 비밀-상징과 그 의미를 푸는 시각적 열쇠', 서울:문학동네.
- 루빙지에·차이앤센, 김형호.(2008), '중국문화 7-건축예술', 서울:도서출판 대가.
- 리영순.(2006). '동물과 수로 본 우리 문화의 상징세계', 서울:도서출판 훈민.
- 마광수.(2007). '상징시학', 서울:철학과 현실사.
- 박영수.(2005). '유물 속의 동물상징 이야기', 서울:영교출판.
- 아베마 사미치 저. 배정웅 역.(2000). '신사문화를 모르고 일본문화를 말할 수 있는가?', 서울:도서출판 계명.
- 양택규.(2008). '경복궁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서울:책과함께 펴냄.
- 유돈정 외 1인 저. 한동수 외 1인 공역.(1995). '중국고대건축사', 서울:세진사.
- 이재열.(2004). '불상에서 걸어 나온 사자', 서울:주류성.
- 조은정.(1997). '한국 조각미의 발견', 서울:대원사.
- 최종고.(1994). '정의의 상을 찾아서',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 칼 G. 옴 지음. 이윤기 역.(1996). '인간과 상징', 서울:열린책들.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5). '한국문화상징사전2', 서울:동아출판사.
- 허균.(1994). '서울의 고궁산책', 서울:효림.
- 허균.(1992).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서울:교보문고.
- 張競.(2002). '幻想動物の文化誌-天翔るシンボルたち', 農文協.
- 樓慶西.(2004). '中國小品建築十講', 三聯書店.
- 김태영.(2005). 동물의 원형적 상징과 조형 의식.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만곤.(2006). 궁궐 석수조각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선.(1999). 해치상에 관한 연구-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2008). 서울상징개발연구 보고서.